

열린 관광지?...장애인에 여전히 막힌 관광지

〈활동 제약 장애물 없는 관광지〉

전남 3곳 등 전국 8곳 모니터링
점자 책자·안내판 안보이고
자갈길 휠체어 이동 힘들어
장애인 홀로여행 사실상 불가능

순천만습지공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지들의 장애인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천시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휠체어 이동이 가장 힘든 곳으로 꼽혔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 까지 진행한 '장애인 관광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순천만습지공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 한국관광공사 지정 '열린 관광지' 4곳과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 등 일반 관광지 4곳 등 전국 8곳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열린 관광지'란 장애인과 노인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이나 관광활동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뜻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순천만습지공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 열린 관광지 대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표시된 열린관광지용 안내 팸플릿은 비치하고 있지 않았다. 점자 안내책자는 섬진강 기차마을을 제외한 7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된 열린 관광지용 지도와 현장에 설치된 안내판을 비교해보면 시설명, 편의

시설 내용 등이 달라 혼선을 줬다. 또 점자로 된 설명이 들어간 촉지 안내판은 쓰레기통 등이 가로 막고 있어 실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노인 관광객이 많은 낙안읍성은 주요 이동로가 자갈 섞인 흙길로 돼 있어 휠체어 이동이 가장 힘든 곳으로 꼽혔다. 낙안읍성이 보유한 장애인·노약자용 휠체어는 모두 수동이기 때문에 노인 또는 장애인 혼자 관광하기에는 불가능했다. 의상 체험이내 포토존을 즐길 수 있는 읍성 내 전통한례 체험장은 보조 인력이 없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힘들었다.

일부 관광지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저상 매표소를 단체입장객 매표소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눈높이 보다 높은 일반 매표소에서 험잡계 표를 구매해야 했다.

또 문턱이 있는 곳에는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한 곳이 있었지만 이를 안내하는 정보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문턱을 넘기 위해 수습m를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센터는 한국관광공사에게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순천시 등 해당 열린관광지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에 개선을 요청했다.

센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일반 관광지 대비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 접근성이 더 높았지만 선정 당시 실제 장애인들의 선호도는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 즐길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려면 교통·숙박·식당 등 관광지 주변 환경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쓰레기통 등으로 둘러싸여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곡성 기차마을 점자 안내판.



이동로가 자갈길로 돼 있어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순천시 낙안읍성 민속마을.

광주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취소해달라" 잇단 행정소송

5건 접수, 10건까지 늘어날 수도
시교육청·유치원 갈등 법정으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지난해 비리 파문 이후 이뤄진 시교육청의 집중 감사에 따른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이어가는 등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4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지역 유치원 5곳이 장위국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곳은 지난 1월 시교육청의 시정 명령 취소를, 다른 4곳은 지원금 회수 등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3월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유치원들도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송 건수는 10~20건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감사 결과 회수 처분 액수가 적은 곳의 신청으로 끝났지만 액수가 많은 곳 중에는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는 원비, 방과 후 가정 비용, 기타 경비 등 회계 처리와 함께 교육당국과 일선 유치원 사이 논란이 되는 회계 기준 적용 적절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형 유치원, 민원이 제기되거나 폐원 신청한 곳 등을 중심으로 모두 30개 유치원을 감사했으며, 9곳을 경찰에 고발

하고 1곳은 수사 의뢰했다. 6개 유치원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 의혹이 불거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비리 의혹 대상이 된 금액은 모두 2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개 유치원은 계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뒤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됐다. 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19개 유치원 세부조사를 국제청에 의뢰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수차례 방문에도 감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 11곳도 감사 거부 행위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QR code and text: 네이버 공식 포스트에서 구독하세요

광주시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자 30명 18일까지 공모

광주시와 한국청소년인권센터는 '2019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참가자를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올해는 중국 난징시, 캄보디아 껀주 등과 교류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국 난징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껀주는 8월 12~19일 방문할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중국 16명, 캄보디아 14명 등 총 30명이다.

참가자들은 현지 청소년과 봉사활동 등을 함께하고 태평양전쟁 관련 학술추모관 등을 방문한다.

참가희망은 광주시나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후 이메일(1318wawa@hanmail.net) 또는 북구청소년수련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의 한국청소년인권센터 (062-224-5525). /김용희 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1 달뜨기 14:18
해질녘 19:05 달질 03:25

출근길 쌀쌀

아침 기온 낮고 바람 강해 춥겠다.

광주	맑음	4/20	보성	맑음	2/20
목포	맑음	5/17	순천	맑음	6/22
여수	맑음	7/17	영광	맑음	2/17
나주	맑음	1/20	진도	맑음	5/17
완도	맑음	6/20	전주	맑음	2/19
구례	맑음	1/22	군산	맑음	4/16
강진	맑음	2/20	남원	맑음	-1/20
해남	맑음	1/17	흑산도	맑음	7/16
장성	맑음	1/1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0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	서~북서	0.5~1.5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서~북서	1.0~2.0	서~북서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0~2.5	서~북서	1.0~2.0

◇ 생활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높음
미세먼지	보통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3:16	10:37
16:28	23:02	
여수	12:17	05:56
	--:--	18:27

◇ 주간 날씨

16(화)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	☁	☀	☀	☀	☁	☀
7/23	10/21	10/23	11/23	11/21	12/21	12/21

쌀쌀한 아침 내일 봄 기온 회복... 17일 비 소식

15일 광주·전남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전날보다 아침 최저기온이 3~5도 정도 낮아지는 등 쌀쌀한 봄 날씨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 오전 북서풍을 타고 한기가 유입돼 다소 추울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밝혔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4도, 전남 0~7도로 전날보다 3~5도 정도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16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광주 7도, 전남 1~9도로 평년(광주 7.2도, 전남

4.7~9.7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낮에도 평년(광주 19.9도, 전남 17.5~19.4도)기온을 회복해 광주 23도, 전남 18~23도 분포의 포근한 날씨가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또 오는 17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 곳곳에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어 오는 24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수원지구 신설 중 내년 신학기 개교... 교명은 '고실중'

2020년 광주 수원지구에 문을 열 신설 중학교 이름이 고실중학교로 확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개교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장 수원2 중학교로 불리던 신설 학교 이름을 고실중으로 정하고, 개교 시기를 2020년 3월 1일로 결정했다. '고실'은 마을의 옛 지명인 고실마을에서 유래했다. 고실중은 광산구 장덕동 1310번지에 건립 중이다.

일반 24개 학급, 특수 1학급으로 학생

정원은 816명이다. 일반교실 24실을 포함해 117실 규모다. 부지면적 1만2997㎡, 건축면적 3718㎡, 연면적 1만1553㎡다. 지난해 12월31일에 착공해 2020년 1월24일 준공 예정이다. 시교육청 개교심의위는 또한 광산구 어등초등학교와 하남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시기를 올 9월1일로 확정했다. 두 유치원 모두 2개 학급, 50명 정원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선착순 엘리형 태양발전소 분양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